

독거노인의 일상생활 불편함과 보조기, 주관적 인식을 이용한 낙상 예측

박정혜¹

¹가천대학교 길병원

junghae43@nate.com

Fall Predicting Model Using Everyday Discomfort, Subjective Perceptions and Orthosis of the Elderly Living Alone

Jung Hae Park¹

¹Gachon University Gil Medical Center

요약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낙상과 평소의 건강상태, 보조기 사용, 일상생활 불편함 등을 비교 분석해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노인실태조사 2020년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이용하였다. 독거노인의 낙상과 성별, 교육수준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 독거노인의 낙상과 일상생활 불편함과 보조기 사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135명(50.42%),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1798명(63.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 만 60세 이후 자살 생각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18명(6.7%),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63명(2.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1$). 평소 노인들을 상담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생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에 대하여 인지시켜주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치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 서론

2019년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9%이며, 2025년에는 20.3%까지 증가하여 초고령 사회가 될 것이라 하였다[1]. 독거노인은 자·비자발적으로 사회활동이 감소되고, 사회 네트워크의 축소로 인하여 고립이 되는 경우가 높고[2,3], 신체적 건강과 우울 등 건강에 위험요인이 증가하게 된다[4]. 그럼으로 노인들은 생활에서 많은 위험요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중 2017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노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15.9%가 낙상의 경험이 있고 이로 인하여 병원 이용률도 증가하였다고 하였다[5]. 이에 노인의 비의료요인을 통하여 낙상을 예측하는 모형을 구축하여 낙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안내와 주의를 통한 건강한 생활이 되도록 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거노인 낙상과 평소의 건강상태, 보조기 사용, 일상생활 불편함 등을 비교 분석해 예측모형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IRB(한국보건사회연구원 생명윤리위원회 심사결과 통지서 제2020-36호)를 2차 가공하였다. 전체 10097명에서 독거노인 3137명을 추출하고, 낙상 경험(있음 270명 없음2867명) 유무에 따라 구분하였다. 낙상을 예측하기 위하여 평소의 건강상태, 보조기 사용 여부_시력, 보조기 사용 여부_씻기, 일상생활의 불편함_씻기, 현재 운전 여부, 노인 조사 대상자 성별, 노인 조사 대상자 교육수준, 만 60세 이후 자살 생각 변수를 사용하였다.

2.2 자료분석방법

낙상 경험을 예측하기 위하여 통계분석을 위하여 Micro-soft EXCEL로 분석용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연속형 변수는 비모수 검정, 범주형 변수는 Chi-square test 분석을 하였다.

3. 연구결과

3.1 독거노인의 낙상과 일반적 특성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평소의 건강상태가 건강하다고 25.4%가 생각하고 있는 반면,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41.6%가 건강하다고 하였다($p<.001$). 성별은 낙상 경험이 있

는 그룹은 남자 41명(15.2%) 여자 229명(84.8%),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남자 599명(20.9%) 여자 2268명(79.1%)로 차이가 있었다(p=.026). 교육수준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중초등학교 이하가 68.5%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59.3%로 차이가 있었다(p<.001).

3.2 독거노인의 낙상과 일상생활 불편함과 보조기 사용 시력 보조기 사용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168명(62.2%)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1525명(53.2%)가 있다고 하였다(p=.004). 썩기 보조기 사용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138명(51.1%)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1230명(42.9%)가 있다고 하였다(p=.009). 시력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135명(50.42%)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1798명(63.1%)가 있다고 하였다(p<.001).

3.3 독거노인의 낙상과 우울, 자살

독거노인의 우울증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23.16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23.32로 나타났다(p=.081). 만 60세 이후 자살 생각은 낙상 경험이 있는 그룹은 18명(6.7%) 낙상 경험이 없는 그룹은 63명(2.2%)로 나타났다(p<.001).

4. 결론 및 고찰

독거 노인의 낙상을 예측한 결과 92.3%의 예측모형을 나타냈다. 최종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평소의 건강상태 변수로 평소에 매우 또는 건강하다는 5%, 그저 그렇다는 8.1%, 건강이 나쁜 편이라는 11.9%, 건강이 매우 나쁘다는 7.7%로 낙상의 발생 위험을 나타냈다. 모형 결과를 살펴보면 평소 건강에 대하여 보통이거나 다소 좋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의 낙상 발생이 높았는데, 평소 노인들을 상담하면서 자신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생각에 따라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과 이용 가능한 의료시설에 대하여 인지시켜주고, 위험이 발생했을 때 조치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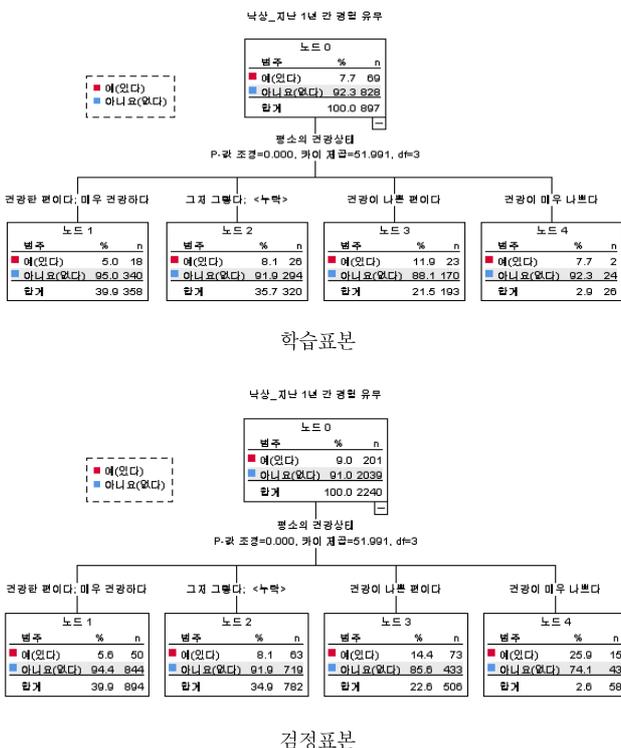
참고문헌

[1] Statistics Korea. 2019 Elderly statistics [Internet]. Daejeon, [cited 2020 Mar 9]. Available from: http://m.kostat.go.kr/board/file_dn.jsp?aSeq=377702&ord=4.

[2] Statistics Korea. 2017 Elderly statistics [Internet]. Daejeon, [cited 2020 Jun 16].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63362.

[3] Gaymu J, Springer S, Stringer L. How does living alone or with a partner influence life satisfaction among older men and women in Europe? Population. 2012;67(1):43-69.

[4] Seok J, Jang E. The effect of social relationship resource by gender on the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2016;71(2):321-349.



[그림 1] 독거노인 낙상 학습모형

3.4 독거노인의 낙상 예측 모형

CHAID를 이용하여 독거노인의 낙상 예측 모형을 확인하였다(그림 1).